





전기전자 Analyst 김지산 jisan@kiwoom.com

LS전선아시아 (229640)

가보지 않은 길.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향해

- ◎ 해저케이블 및 희토류 사업 진출 계획
- >> 임시주주총회(2023.12.12) 의안으로 1) 사명을 'LS에코에너지'로 변경하고, 2) 사업목적에 해저케이블과 희토류
- 를 포함하기로 결정
- >> 희토류 산화물 사업 추진
- 해외에서 정제를 마친 네오디뮴 등을 영구자석 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
- 영구자석은 특히 전기차 모터에 필수적, 로봇, 풍력발전기 등에도 사용
-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희토류의 탈중국화 기조에 부합. 네오디뮴은 90% 이상 중국에서 생산
- ›› 해저케이블 사업은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기업 페트로베트남의 자회사 PTSC와 MOU 체결
-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 구축 예정
- ◎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고도화 기대
- >> 전력선은 중저압 제품 중심에서 해저케이블로 고도화, 베트남 해상풍력 시장 고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
- >> 희토류는 전기차 관련 사업 확대하고 있는 LS 그룹 내 시너지 효과 기대
- >> 임시주총 이후 신규 사업 내용 구체화 여부 확인 필요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1월 27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 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 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만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